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27일 월요일 음 2월 6일 (13월)

특별기고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에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6-8℃로, 낮 최고기온은 12-16℃로 예상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moon phase, and tide information.

Table with air quality index (PM10, PM2.5) and UV index.

Table with air quality index (PM10, PM2.5) and UV index.

월드뉴스

이스라엘 국방부 "사법정비 즉각 중단"

사법부 무력화 입법 제동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립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 시도에 현직 국방부장관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국민 연설하는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장관은 25일 (현지시간) TV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자신이 참여하는 연립정부가 '사법 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연정 측이 마련한 법안은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반대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예비역 군인들도 이에 동조해 잇따라 훈련 불참 선언을 했다.

갈란트 장관은 "우리 사법 시스템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요 변화는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여권이 진행 중인) 입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



박찬식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중국 태산(泰山)과 탐라의 역사 인연

중국 당나라 역사서 '구당서'에는 "666년 태산에서 봉선제가 열렸다. 유인제는 신라, 백제, 탐라, 왜국 등 4국의 추장들을 데리고 갔다. 당 고종이 매우 기뻐했다"고 기록돼 있다.

7만명 이상 병력이 투입된 전투였다. 중국 학계와 일본 학계 모두 동아시아 고대사의 명운을 가른 중요한 전쟁으로 보고 있다. 한국사 학계에서 백제부흥운동 정도로 보는 것과는 다른 시각이다. 이 전쟁의 중심에 작은 섬나라 탐라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이후 주변 나라들을 참여시켜 자국 중심의 세계관과 국제질서를 과시하고자 했다. 666년의 태산 봉선제는 지금의 동북아시아 정상회담과 다를 바 없는 매우 중요한 정치의 교적 이벤트였던 것이다.

660년 나당연합군에게 백제가 멸망했다. 백제와 친교를 맺었던 탐라는 663년에 백제부흥운동의 부흥군을 도와서 왜국과 함께 참전했다. 8월에 전개된 백촌강 전투에서 탐라-왜국-백제 부흥군은 나-당 연합군에게 패배했다. 1000여 척의 배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당 고종과 측천무후는 진시황, 한 무제 때 예나 치러졌던 태산 봉선제를 거대하게 치르기 위해 공을 들였다. 봉선제는 중국의 제왕이 하늘과 땅에 왕의 즉위를 고하고, 천하의 태평함에 감사하는 제천의식으로서 태산에서 치러졌다. 사람들이 가장 높고 크며 만물이 생성되는 곳이라 생각한 태산에서 봉선제가 치러졌다.

이러한 태산 제천의식에 탐라 사신들이 신라, 백제, 왜국과 대등한 자격으로 회동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탐라는 백제와 가까우면서도 고구려, 신라뿐만 아니라 중국, 왜국과의 관계에도 감사하는 제천의식으로서 태산에서 치러졌다. 사람들이 가장 높고 크며 만물이 생성되는 곳이라 생각한 태산에서 봉선제가 치러졌다.

아 질서에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참여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근 오영훈 지사 일행이 산동반도를 시찰하고, 하이난섬 보아오포럼에 참석했다. 제주와 중국과의 교류 확대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해 보인다. 산동반도는 우리나라와 제주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신라방과 장보고의 법화원 유적이 웨이하이에 있으며, 칭다오에서 가까운 곳에 봉선제가 치러진 태산이 있다. 탐라인들이 중국으로 갈 때 관문이 바로 산동반도이다. 탐라 사신이 참석해 봉선제를 올렸던 다이묘 유적이 태산 남쪽 기슭에 남아있다. 1987년 태산은 이러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결합시킨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제주 방문단이 666년 태산 봉선 의례에 참석한 탐라 역사를 거울삼아 제주-중국의 교류 길을 확 트고 오길 기대해 본다.

열린마당

'탐나는전' 쓰고 알뜰소비 얻자



강창웅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제주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이 출시 4년 차를 맞았다. 지난 해 탐나는전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운영대행사가 교체된 이후 이용자, 가맹점은 물론 각종 결제 데이터 이관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3월 현재 앱 가입회원은 18만여 명이고 누적 결제액은 760억여 원이다.

탐나는전 중점 인센티브는 추경 예산 확보 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고,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할인 혜택(5~10%)은 현재 시행 중이다.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이 구분되는

이 정책은 대형유통에 비해 경영상태가 열악한 소상공인 매출을 신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탐나는전 이용고객 중 소상공인 가맹점에서의 결제 비율은 최근 70~80%대를 유지하는 상황으로 지역정서가 반영된 이용자 친화적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가맹점은 탐나는전 홈페이지에서 할인을 안내 스티커(10%, 5%)를 내려받아 가게 홍보에 활용할 수 있고, 경조사 담례액 등을 탐나는전 앱을 통해 손쉽게 송금하는 기능도 4월부터 가능해진다.

또한 기억해야 할 계절인 4월, 4·3 정서를 그려낸 탐나는전 카드도 출시된다.

제주지역 정서를 담아 더욱 편리해진 탐나는전은 소상공인 매출 신장 및 이용자 체감도가 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 노릇을 해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물 절약,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고세호 제주시 환경지도과 팀장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수도물을 틀었다. 한참을 틀어놓으니 마침내 따뜻한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물을 틀어 놓은 채로 세수와 양치를 하고 면도를 하며 머리를 감는다. 나름 개운한 시작이다.

사무실에 가던 중 어떤 분이 예쁜 컵, 그리고 작은 전단지 하나 건넸다.

'생활 속 물 절약방법, 물 사용 1/2로 줄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할 때 10분에 100ℓ의 물이, 양치할 때 30초에 6ℓ의 물이, 샤워할 때 보통 120ℓ

의 물이 사용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나의 상쾌함을 위해 흘려보냈던 물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매년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인구와 경제 활동의 증가로 수질 오염과 먹을 수 있는 물이 부족해지자 경각심을 일깨우고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기 위해 UN에서 제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동참해 오고 있다.

물 부족 원인은 인구 증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1인당 물 사용량 증가 등이 있다.

우리나라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물은 282ℓ로 미국 387ℓ, 일본 311ℓ에 이어 주요 국가 중 세계 3위에 해당되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에 물 스트레스 지수가 1위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작은 불편이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있을 때 잘하자.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Advertisement for '감굴묘목' (Ganggul Myeomok) nursery, listing various plant typ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모든품종 감굴(묘)분양' (All varieties of Ganggul seedlings) nursery, listing various plant typ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감굴묘목·포트묘목 분양' (Ganggul Myeomok and Pot Myeomok) nursery, listing various plant typ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Jeju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by Hanra), listing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